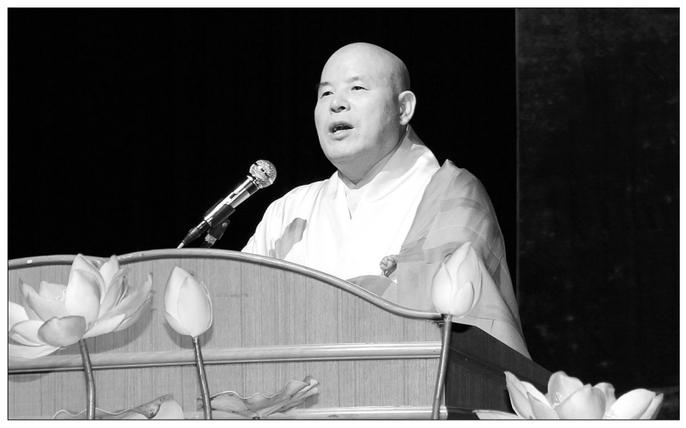
"불교 스스로 변화하고 쇄신하자"

총무원장 자승스님, 대전 청림회 주최 성도절대법회 법문서 '불교결집' 피력


11일 대전 비구니 청림회 주최의 '부처님 성도절 대법회' 법문하고 있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성도절을 맞아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교 스스로 변화하고 결집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변화와 쇄신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1일 대전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정심화홀에서 열린 대전 비구니 청림회 주최 '부처님 성도절 대법회' 법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탓하기에 앞서 불교 스스로 변화와 쇄신하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며 쇄신과 결집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불교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변화하고 결집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며 "2000만 불자가 결집하지 못하는 한 여·야 구분없이 정치인들은 불교를 추수 후 떨어진 이삭줍기식으로 홀대할 것"이라며 불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총무원장 스님은 정부 여당 관계자의 사찰 출입 금지를 야당이 좋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야당은 결코 이를 이용하거나 즐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책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현재의 민족문화수호운동이 여당이 싫거나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교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함을 질책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불교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문화재를 위해 불교를 지원했다는 식의 접근이라면 야당도 언제든지 경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민족문화수호운동의 정치적 활용을 질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리이타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성도절을 맞아 그동안 자리에 비해 소홀했던 이타행도 열심히 실천하겠다고 서원해야 한다"면서 "사부대중 모두가 우리 문화재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인식의 전환과 각자의 삶의 방식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서원을 하는 법회가 됐으면 한다"고 재차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부처님 성도절 대법회는 2000여 명이 정심화국제문화회관 정심화홀을 가득 메운 채 성도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대법회에서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대전 비구니회 청림회장 효경스님에게 총무원장상을 수여했으며, 청림회장 효경스님이 최봉종, 김문영, 신도성, 박규석 불자에게 자랑스런 불자상과 공로패, 포교상, 감사패 등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이어 충남대불교학생회와 대전보문중고등학생 30여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학업 매진과 더불어 불교신행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소리꾼 장사익 씨와 청림회합창단 등이 축하공연을 펼치며 부처님 되신 날의 의미를 자축했다.

청림회장 효경스님은 대회사에서 "청림회는 1986년 성도절을 기해 창립한 뒤 오늘날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심과 정서함양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불교문화를 선도해 행복한 대전을 가꾸고 소통과 화합으로 끊임없이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전=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이시영 충남지사장 lsy@ibulgyo.com

비구니 영어교육기관 학사일정 공개

교육원, 3월 용인에 국제불교학교 개교
2년 10학기…매년 6주간 해외연수 실시
영어입문 교리 불교사 불교상담 등 지도

종단 최초의 비구니 영어전문 교육기관으로 관심을 모았던 국제불교학교의 커리큘럼이 마침내 공개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오는 3월 용인 화운사에 개원할 국제불교학교 학사일정을 발표하고 국제포교에 원력을 세운 비구니 스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제불교학교(학장 무진스님)는 외국인 학장 스님 및 원어민 강사의 지도하에 모든 생활과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 2년 과정으로, 1년을 5학기로 나눠 운영된다. 1학기 수업기간은 10주 학기 사이에 1주간 방학이 있으며, 매년 마지막 학기에는 외국인과의 교류와 현지문화체험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오는 3월24일부터 10주간 이어지는 첫 학기에는 교리나 영어 입문단계로 기초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기초불교 교리와 영어회화 인사법, 불교상담 교육과 부처님 오신날 행사 관련 영어표현들을 지도한다. 또 봉축행사기간에는 불교문화마당에서 현장실습도 예정돼 있다. 2학기는 역사와 예술을 주제로 불교사와 불교미술에 대한 프로그램이 집중되며, 3학기에는 창의성 향상을 위한 영어작문과 '선과 창의성'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4학기에는 인간관계기술을 주제로 한 수업을, 5학기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6주간의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2학년 커리큘럼은 1학년 과정을 심화한 형태다.

수업은 주5일 정규수업과 주말 특별활동으로 구성된다. 정규수업은 하루 8시간이며, 주말에는 영어템플스테이나 초청특강으로 운영된다. 스님들은 날마다 영자신문을 읽고, TV 영어뉴스를 본 뒤 외국인강사와 토론한다. 영어일기를 쓰고, 국제매너를 몸에 익히는 것 또한 매일 해야 하는 과제다. 이외에 매주 1회씩 학장 무진스님과 개인 인터뷰를 하고 에세이 작문을 제출해야 한다. 또 둘째 넷째 금요일마다 외국인 강사와 2분 영어인터뷰를 하고, 매달 한 차례씩 서양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는 특별한 시간도 준비돼 있다.

일일시간표를 보면, 여느 대학 못지않다. 국제불교학교의 하루는 오전4시30분 아침예불로 시작한다. 오전7시30분에서 12시까지 계속되는 오전 2교시 동안에는 일반영어회화와 불교자료 듣기, 쓰기 교육이 진행된다. 오후2시부터 수업을 재개, 불교관련 내용의 강의 및 실습을 하고, 3교시 후에는 참선요가, 선무도 등 몸을 다스리는 시간을 갖는다. 오후7시부터 9시까지 예정된 저녁수업에서는 영어뉴스나 DVD 보고 듣기 훈련을 하거나 영어법문을 듣고 토론한다.

교육원은 "국제불교학교는 국제회의나 국제행사를 진행하고 법문을 동시통역하거나 외국인 템플스테이를 지도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종단에서 직접 설립했다"며 "한국불교 세계화에 원력을 세운 비구니 스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영어회화가 가능하고, 국제포교에 원력이 있는 비구니 스님은 누구나 국제불교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올해 구족계 수지 예정인 사미니도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10명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2월22일까지다. 면접은 2월28일에 실시되며, 합격자 발표는 3월11일로 예정으며, 합격자 명단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학일은 3월23일이다. 특전도 있다. 종단이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매년 6주간의 해외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또 3급 승가고시 자격(2년)이 인정된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논산 법당' 불사에 3000만원 쾌척

청림회, 총무원장스님과 군종특별교구에 전달

대전 비구니 청림회(회장 효경스님)가 논산 육군훈련소 법당 건립불사에 3000만원을 쾌척했다.

대전 비구니 청림회는 지난 11일 대전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정심화홀에서 열린 '부처님 성도절 대법회'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군종특별교구장 자광스님에게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건립불사비에 보태달라며 3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이날 전달한 3000만원은 부처님 성도절 대법회 현장 모연과 더불어 청림회 회원 스님들이 사전에 십시일반으로 보시한 기금을 모아 마련됐다.

청림회장 효경스님은 "미래 불교의 희망인 군포교를 위해 회원 스님들이 흔쾌히 동의해줘 육군훈련소 법당 건립불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루속히 법당이 개원해 많은 군장병들이 부처님 품안에서 군생활의 위안을 삼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군종특별교구장 자광스님은 "청림회 회원 스님들과 대전지역 불자들의 염원에 어긋하지 않도록 법당불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화답했다.

대전=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이시영 충남지사장 lsy@ibulgyo.com

구족계 수계산림 일정 발표

총무원, 3월24~4월1일 통도사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0일 구족계와 식차마나니계 수계산림 일정을 발표했다. 먼저 제31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은 오는 3월24일부터 4월1일까지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열린다. 접수기간은 오는 2월16일부터 2월25일까지이며, 2007년 3월까지 사미계, 식차마나니계를 수지한 사미 사미니로서 종단 기본교육기관 졸업자 또는 1995년 이전 출가자로 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9회 단일계단 식차마나니계 수계산림은 오는 4월11일부터 14일까지 수원 봉녕사에서 봉행된다. 어현경 기자

선운사 승가대학원 '1기 신입생' 모집

제24교구본사 선운사 불학(초기 불전) 승가대학원(원장 재연스님)은 새 시대의 승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월28일까지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총 2년 과정의 불학 승가대학원은 인도사상사, 인도불교사, 초기 경전 성립과 구성, 빨리어 경, 율, 론 외 특강 등의 교과목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승가대학원장 재연스님을 비롯해 각묵스님, 미산스님, 환성스님 등이 교수사로 나선다. 엄태규 기자

현장에서

승가고시 질적향상에 담긴 뜻

2011년 승가고시가 대폭 개편된다. 조계종 고시위원회는 올해부터 승가고시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새롭게 도입된 승가교육 개편안을 시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급과 3급 시험과목이 변경되고, 수행평가가 강화돼 면접 배점이 높아진다. 고시위원회는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해 변별력을 기르고 합격률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 난위도 조정 미흡이나 합격률도 94.6%에 달해 단순한 통과의례로 여겨졌던 단점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발표된 승가고시 출제경향을 보며 시험을 준비하는 스님들의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생각을 했다. 하지만 승가고시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수행자 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스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탁월한 식견과 안목이다. 많은 이들이 그 해답을 교육에서 찾는다.

고시는 그런 교육을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매개다. 승가고시의 변화는 승단의 교육과 맞물려 있다. 아무리 작은 변화도 종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고시의 수준이 수행자의 역량을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시의 질적 향상은 매 순간 이뤄야할 과업인 셈이다.

이번 승가고시 개편은 고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새롭게 도입된 교육과정과 승가고시 개선을 통해 많은 스님들이 종단과 사회적 지도자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틀이 마련되길 바란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 법석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한국불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어떠한 한국불교를 만들 것인가?'
'한국불교,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우리 종단은 새해를 맞아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큰 화두를 설정하여 사부대중과 함께 토론함으로서 나아갈 방향과 내용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한국불교중흥이란 한국불교가 '시대와 중생계에 부응하며 자비를 실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중생계의 혼란과 고통을 자신의 중심적 문제로 삼는 것이며, 불교를 다시 한 번 한반도에서 꽃피우고, 인류사회의 큰 가르침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의 문제는 오늘날 한국사회와 세계문명의 흐름을 잘 알아야 그 내용과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체적 해답의 모색을 위해 종단의 '승가교육진흥위원회'는 2011년 1년간 매달 1회씩 대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종단의 지도자와 전문가,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모두 모여 기탄없는 토론을 통해 문수보살의 대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월 대토론회

- 주 제 : 한국불교의 현재적 성찰과 나아갈 방향
- 발제자 : 원담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 토론자 : 성문스님(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주경스님(중앙종회의원)
  조성택(고려대 교수)
  곽병찬(한겨레신문 편집인)
- 일 시 : **불기2555(2011)년 1월 27일(목), 14:00 ~ 18:00**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주최·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
- 문 의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02-2011-1810)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상기 일정은 종단의 주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제에 따라 1박2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7~12월 대토론회 주제는 추후 확정 후 공고 예정입니다.

2월 주 제 : 한국불교 교단과 국가
발제자 : 원택스님(조계종 화쟁위원회 부위원장)
일 시 : 불기2555(2011)년 2월 23일(수)
3월 주 제 : 현대사회에 구현해야 할 불교적 가치
발제자 : 미산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일 시 : 불기2555(2011)년 3월 30일(수)
4월 주 제 : 생명·생태문제와 한국불교
일 시 : 불기2555(2011)년 4월 27일(수)
5월 주 제 : 한반도 평화·통일문제와 한국불교
일 시 : 불기2555(2011)년 5월 25일(수)
6월 주 제 : 사회 정의 실현과 불교의 자비실천
일 시 : 불기2555(2011)년 6월 29일(수)
7월 일 시 : 불기2555(2011)년 7월 27일(수)
8월 일 시 : 불기2555(2011)년 8월 24일(수)
9월 일 시 : 불기2555(2011)년 9월 28일(수)
10월 일 시 : 불기2555(2011)년 10월 26일(수)
11월 일 시 : 불기2555(2011)년 11월 23일(수)
12월 일 시 : 불기2555(2011)년 12월 21일(수)

불기 2555(2011)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승가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자 승